

모난 것들도 석굴암에 와서는 둥글어진다

문명대 교수, 다시 듣는 명강의 '통일신라 조각과 석굴암'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나오면 길가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있어서는 안 될 작품으로 경주의 불상을 갖고 있다. 영국인은 인도를 잃어버릴 지언정 세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이 석굴암의 불상이다."

그만큼 석굴암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며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의 걸작이다. 석굴암은 1300여 년 전의 건축물이라고는 상상 못할 정도로 과학적이며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작품으로 꼽힌다. 불상을 영원히 머물게 해 언제나 나라를 지키도록 한 신라인들의 지극한 바램이 걸작을 만들어 낸 것이다. 현재 석굴암 석굴은 국보 제24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며,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록됐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사진)는 지난 11월 3일 동국대에서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다시 듣는 명강의 시리즈'의 강연자로 나서 통일신라 시대 석굴암에 대해 말했다.

석굴사원 인도에서 유래

석굴사원은 원래 뜨거운 열과 비, 독충을 피해 예배와 수도 등의 종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석굴사원은 자연동굴에서 유래했는데, 동굴은 원시인들의 주거지였고 새와 짐승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도의 수도자들도 이러한 동굴을 그들의 수도장으로 즐겨 이용하기 시작했다. 찌는 듯한 더위나 습한 장마철, 맹수들의 습격이나 세속의 소란함을 벗어나 조용히 수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교 승려들도 자연동굴을 수행의 장소로 즐겨 이용했는데, 경전과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는 당시의 동굴 수만 해도 상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승단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연 동굴만으로는 그 수요는 물론 사원에 기대 되는 장엄한 분위기를 도저히 채울 수 없기에 이른다. 그 결과 암석을 파 석굴사원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교단의 팽창이 낳은 필연적 변화 때문이다.

지금까지 토함산 석굴은 일반적으로 석굴암(石窟庵)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불려왔다. 그런데 석굴암의 이름은 이와 다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석불사(石佛寺)'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큰 돌부처님이 있는 절'이란 뜻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불국사에 속하는 산중암자로 격하되면서 석굴암이라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토함산 석굴은 신라 최성기의 불교문화가 종합돼 출현한 위대한 걸작품이다.

석굴암 조성의 배경이 된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관불삼매해경> <관정경> <금광명경> 등 초기밀교 경전을 기본으로 정립된 신인종 계통의 사상이 근본이 되고 여기에 화엄, 법화 등 대승불교의 여러 사상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석굴암의 구조는 과학적으로 매우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설계됐다. 단단한 화강암을 판석으로 다듬어 전실(前室)은 방형(方形), 본실(本室)은 원형인, 이른바 전방후원식(前方後圓式) 평면을 바탕으로 동행 석실을 정교하게 짜올린 아름다운 석굴이다.

석굴에 들어서면 마주치는 첫 번째 사각형의 방이 바로 전실이다. 전실을 지나면 복도인 연도가 나타나고 다시 이곳을 거치면 동근 원형의 본실이 나온다. 여기에 방(方)은 땅[地]이고, 원(圓)은 하늘[天]을 뜻하므로 석굴암은 천지(天地)인 우주를 상징한다 할 수 있다. 이때 땅은 세속을, 하늘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불교의 우주관과 진리관을 신묘하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영 기본원리는 원의 조화

이러한 전방후원식의 석굴구조는 인도나 중국의 석굴사원은 물론 중국이나 고구려 고분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분 중에서도 이 형식을 적용한 예를 상당수 볼 수 있다.

석굴의 내부를 살펴보면 평면은 전체의 큰 원 속에 전실의 외연을 잇는 동근 원과 본실의 원이 두 원을 이루고 있으며, 이 두 원은 다시 무수한 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입면(立面)에서도 마찬가지로 석굴은 원과 원의 조화, 즉 원들의 조화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불교의 진리인 연기를 상징한다. 연기사상은 무한한 고리로 비유되며, 곧 원의 집합, 또는 원의 조화로 설명된다. 원과 원이 중중망(衆衆網)으로 연결돼 무한히 전개되는 원의 조화는 끝도 시작도 없으며, 나고 죽음이 없는 시종여일(始終如一)하고 생사일여(生死一如)의 연기사상을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석굴암 내부의 평면구조를 살펴보면, 본실은 동근 원형으로 전실은 네모난 방형(方形)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전실의 방형은 원에 내접하는 방형으로 결국 원의 구성원리가 기본이 되고 있다. 원과 원의 접합점에서 동글게 원을 그리면 두 원은 큰 원 속에 들어가게 되며 좌우로 두 개의 원을 그리면 큰 원 속에 중간 원이 들어가게 된다. 이 원들을 중간원이라 한다면 이 원들 속에는 또 다른 4개의 원이 들어가며, 같은 원리로 계속해서 원들이 생겨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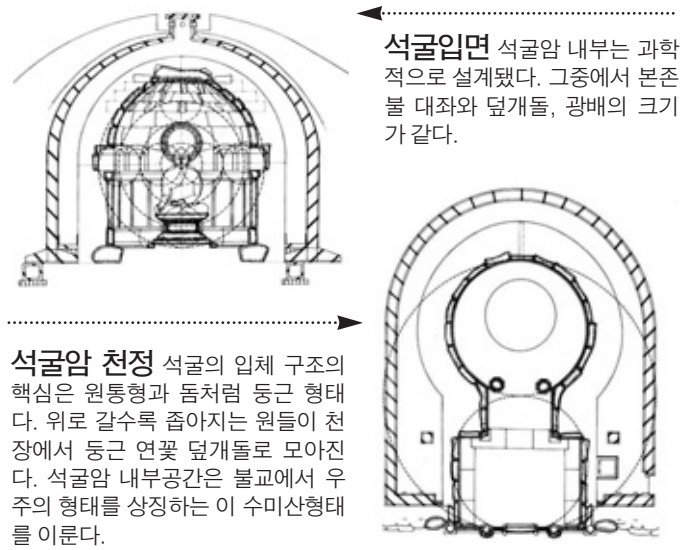


석굴암 본존불상. 동근 대좌 위에 항마촉지인(악마를 항복하게 하는 손모양)을 한 거대한 불상으로 비례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다.

되므로 한 원 속에 무수한 원들이 중중(衆衆)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숏한 원들의 조화가 석굴암 평면의 기본 계획이자 구성원리라 할 수 있다.

석굴의 본실은 판석을 동글게 쌓아올렸으나 연도나 전실은 수직으로 올리고 있다. 천정의 경우, 본실은 동글게 공통형(穹窿形: dome)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부공간이 바로 수미산 형태를 이룬다. 불교에서 우주의 형태를 상징하는 이 수미산형은 성대(聖臺)종이나 황룡사대종과 같은 신라의 범종에도 나타나고 있어 당시 신라인들의 사상과 미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굴 입면의 너비 대 높이를 대비해보면 24:18로 4:3의 구형(矩形)이 된다. 이 구형은 1:1.33의 직사각형으로 이 비례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구형비례인 1:1.382에 가장 근사한 수치로



원용무애한 신라의 미

주목된다. 이 1:1.4 구형은 여러 비율의 평균치인 5:8 즉 1:1.6이라는 서양의 황금비와는 다소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애호했던 안정된 비례로 통일신라시대의 각 사원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석굴의 평면은 원과 사각과 팔각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원으로 통일되고 있다. 사각과 팔각은 원에 내접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큰 원 속에 주실의 원과 전실의 원이 병존하며, 이 속에서 다시 네 개의 원을 끝없이 상징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 원 속에 무수한 원이 조화돼 있는 것이다. 입면 계획 역시 원의 상승과 집중, 그리고 정면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 원의 확산과 집중이라는 구도에서 계획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또한 24:18 즉 4:3이라는 안정비례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구성미를 더해 이루어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석굴의 입면과 평면계획은 원들의 조화가 빚어내는 '원의 미', 이른바 '원용무(圓融美)'를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사각형과 팔각형 등을 다채롭게 변형시키고, 풍요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미해 조화로운 신라의 미를 창조하고 있다.

정리=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석굴암의 창건 동기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권5 '대성효이 세부모조(大城孝二世父母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세 부모를 위해 석불을 세웠다. 장차 석불을 조각하고자 하여 큰 돌을 다듬어 감개(감실을 덮는 천장정물)를 만드는 중이었는데, 돌이 갑자기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 대성이 통분해서 어쩔곳이 없었는데, 밤중에 전신이 내려와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대성이 문득 깨어나 이를 보고 남쪽 고개에 올라 향을 피워 전신에게 공양했다. 이로써 그곳 이름을 향령(鄉嶺)이라 했다.

해공왕 때를 지나 대력 9년 갑인(774년) 12월 2일에 대성이 죽으니 나라에서 마침내 완성시켰다. 처음에 유가의 대덕 스님을 살게 해 항마(降魔, 대덕의 이름이라고도 함)하게 한 후 계속 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 것은 옛 향전과 같지 않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잘 알 수 없다.

이 기록으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삼국유사>에서는 옛 향전을 인용해 신라 경덕왕 15년(751) 당시 재상이던

왕실 번영과 국가 안녕 위해 창건

김대성이 그의 전세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창건했다고 밝히고 있다. 효심의 표현으로 석굴을 창건한 것이다.

둘째, 경덕왕 때의 재상 김대성은 성덕왕 때에 중시 벼슬을 지낸 김문량의 아들 김대성으로 보고 있어서 김대성은 태종 무열왕계의 진골 김씨 왕족의 일원으로, 성덕왕 및 경덕왕과 가까웠던 인적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여기서 전세 부모란 현세에 살

아 있는 부모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말한다. 태종 무열왕계의 후손들이 문무대왕·신문대왕·효소왕·성덕왕과 같은 역대의 왕과 왕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대성이 세상을 떠났어도 국가적으로 석굴을 완성한 것을 보면 석굴암이 개인적인 곳이 아니라 국가적인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석굴암은 토함산의 동쪽 중턱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 석굴의 위치를 정한 것은 항마(降魔), 즉 바다로 들어오는 악마군인 왜군을 항복시키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바다로 들어오는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석굴암 불상을 조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토함산 석굴과 본존불상은 곧 신라 왕실의 번영과 해적 왜구를 물리치기 위한 국가 안녕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문화원장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빙),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안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만으로 속 시원히 알 수 있음.

※ 2009년 3월 3일 (MBC-TV 특종 놀라운세상) '귀신씩인 나무의 실제편 출연'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선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소스님"이나 "선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선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회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천기비밀

천기비밀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훑히 볼 수 있는 대정미법!

365일 매일 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훑히 볼 수 있는 대정미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02) 3667-4446
010-3813-4443

百超律歷學堂